

거래정지 유가증권 상장사, 거래재개 결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 04. 23.

Executive Summary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절차로, 단발적인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리스크 대응 영역입니다. 특히 배임과 같은 내부 비위가 발생한 경우, 단순 책임 추궁을 넘어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여부가 거래 재개의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민·형사 조치를 통한 법적 책임 규명과 손해 회수에 그치지 않고, 지배구조 개편,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주주 및 최대주주 커뮤니케이션, 거래소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대응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유지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본 자문은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상장적격성심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거버넌스, 커뮤니케이션을 결합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바른은 각 영역 전문가의 유기적 협업을 기반으로 한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의 상장적격성심사 리스크 상황에서 기업 가치 제고와 기업 정상화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기업은 유사 상황 발생 시 단기적 분쟁 대응을 넘어, 경영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사건 개요

법무법인(유) 바른은 유가증권 상장사인 A상장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응 및 거래재개의 전 과정을 자문하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유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A상장사는 전직 임원들의 배임행위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거래정지의 원인이 된 전직 임원들에 대한 민형사 조치,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체계 정비, 주주 설득, 거래소 대응 등의 통합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개선을 인정하여 2026. 4. 8.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장 유지를 결정하였고, 2026. 4. 9. 자로 A상장사의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② 경과

- 2025. 3. 최대주주 본사 방문 미팅 참석하여 현재 상황 설명
- 2025. 5. 전직 임원 등 배임행위자 대한 형사 고소 및 공시에 따른 주권거래정지
- 2025. 6.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의 소제기, 배임행위자 재산 보전처분 인용결정
A상장사,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경영개선계획서 작성
- 2025. 7.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8개월 부여 결정(거래정지 지속)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TFT 결성
- 2025. 9. 최대주주 미팅을 통해 추가 진행 상황 설명
- 2025. 10.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감사위원회, 위원회 구성) 도입
- 2025. 11. 공동대표이사 후보 추천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자문
- 2025. 12.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임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상황 설명
- 2026. 2.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경영개선계획 이행 현황 점검 및 보완
- 2026. 3. 경영개선계획이행보고서 제출
- 2026. 4.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거래재개 결정

③ 결정 : 거래재개 결정

A상장사는 전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인해 거래정지결정(2025. 5. 12.)이 되었으나 개선기간 동안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상장유지결정(2026. 4. 8.)을 받고 약 11개월만에 거래재개(2026. 4. 9.)가 되었습니다.

④ 바른의 역할

• 형사조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전임 임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수당사자에 의해 복잡하게 설계된 거래 구조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적쟁점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명확히 이해하여 기소에 이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민사조치

회사의 손해 회수를 위해 위해 부당이득금반환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의 실익을 위해 배임행위자들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제기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거래소 대응

거래정지 이후에 경영개선계획서 작성 및 경영개선이행보고서 작성 자문을 통해 회사의 개선 의지와 개선계획 이행 과정을 거래소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기업심사위원회 법률 자문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 과정에서 회사가 진행한 법적 조치들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해 기업심사위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 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사회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외부 전문경영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이사 및 독립이사 제도가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상법의 취지가 정관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주 대응

최대주주와의 정기적 미팅에 참여하여 회사의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소액주주들에 대해 회사의 적절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고, 회사에 IR 활동을 제안하고 IR 내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시사점

기업의 상장적격성심사 리스크 대응은 단순 법률 문제가 아닌 기업 생존 전략입니다. 본 건은 내부 배임행위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시 및 거래소 대응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바른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 자문팀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상장유지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도 상장적격성심사와 거래정지 등 중대한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관여 전문가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사건에 각 영역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김도형 대표변호사 최적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자문 창구를 일원화를 통해 위기 대응에 최적화된 자문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A상장사의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경영개선계획서 상의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자금 관련 '내부통제 제도' 마련이 핵심 사항임을 파악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의 합류를 회사에 제안하고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이끌어, 회계 자문과 결합된 종합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윤기준 고문

한국거래소에서 재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절차별 대응 방안에 대해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경영개선계획과 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차질 없이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자문하여, 기업심사위원회가 기업의 계속 가능성을 인정해 거래재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복잡한 경제범죄를 수사지휘한 검찰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자로 보이는 법률행위의 실질이 회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전직 임원의 배임행위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행위자를 포함한 공범자들에 대한 고소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치밀한 법리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이 행위자들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그 결과 주요 범죄행위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형진 변호사

기업에서 유사 사례를 경험하였던 사내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전직 임원의 배임행위에 대한 회사의 업무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자문, 최대주주와의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제안 및 시행을 위한 자문,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소액주주들에 대한 회사의 법적 조치 관련 설명,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개선계획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 IR 제안 및 진행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삼정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 회사의 경영개선계획서와 경영개선계획이행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하고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회사의 대응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경영진, 주주, 거래소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박상오 변호사

회사의 손해 보전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 및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의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제기함으로써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와의 미팅에서 회사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전달하여, 최대주주가 회사의 조치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기존의 신뢰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박현중 변호사

경찰에서 다년간 재직한 경험으로 경찰의 수사방향과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의견서 제출, 핵심 쟁점에 대한 메모 전달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사담당자가 고소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에 특화된 수사대응 자문을 제공했습니다.